평 화 선 언

전쟁의 폭풍 사납게 휘몰아쳐, 잿더미가 되어 버린 우리 섬 오키나와.

현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전쟁의 부조리와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로부터 74년. 끔찍한 기억에 마음을 닫은 전쟁 체험자가 무거운 입을 열어 후세에 전하고자 이야기하는 증언 등을 접할 때 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되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새로이 결의를 다집니다.

전후의 폐허와 혼란을 극복하고 인권과 자치를 되찾고자, 미군 점령 하에서 견뎌내 온 우리들 우치난추(오키나와 사람). 그 눈물과 땀으로 얻은 것이 사회를 지탱하고 희망의 세기를 개척하는 꿋꿋한 삶을 이어가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현민을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 여러분이 진력해주신데 힘입어 한걸음 한걸음 착실하게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74 년이 경과해도 여전히, 일본 국토 면적의 약 0.6 퍼센트인 오키나와현에는 미군전용시설의 약 70.3 퍼센트가 집중해있습니다. 광대한 미군기지는 이제는 오키나와의 발전 가능성을 동결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으로 복귀한 지 47 년 동안 오키나와현민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기지에 기인하는 사건·사고, 소음 등의 환경문제와 같은 과중한 기지 부담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올해 4 월에는 주오키나와미해병대소속 미해군병에 의해 슬프고 처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민의 바람인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도모하고 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일지위협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미일 양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야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는 미군기지 문제는 오키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외교·안전보장과 인권, 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일본 국민 전체가 스스로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1996 년 미일지위협정의 재검토 및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묻는 현민투표가 실시된 지 23 년이 지난 올해 2 월, 헤노코(辺野古) 매립의 찬반을 묻는 현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 다수의 현민이 매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민투표의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끌어 낸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지방자치 또한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키나와현민 대다수의 민의의 편에 서서, 헤노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히지 말고, 오키나와현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위험성이 하루 빨리 제거되고, 헤노코로의 이전이 단념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현민 여러분, 현외, 해외에 계신 여러분과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대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변해가는가운데, 세계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민족과 종교의 대립 등으로 지역분쟁과 테러의 위협에 처해 있는 나라와 지역이 있습니다.

빈곤, 난민, 기아, 전지구 규모의 환경문제 등 생명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절차를 밟는 등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진정한 항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더욱 상호 이해에 힘쓰고 한층 더 협력하고 조화해나가야합니다.

오키나와는 일찍이 아시아의 나라들과 우호적인 교류와 교역을 구가한 "만국진량(萬國津梁)"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련된 문화를 구축해온 류큐(琉球)왕국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수례(守禮)의 나라"로서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연면히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힘차게 이어받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류큐문화를 토대로 평화를 희구하는 오키나와의 치무구쿠루(肝心:정신)를 세계에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전해 나감으로써 한층 더 국제 사회와 함께 항구평화의 실현에 공헌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국적과 인종의 구별없이 희생되신 모든 영령에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올리며,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누구 하나 홀로 남겨지지 않는, 다양성과 관용성이 넘치는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임할 결의를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평화를 사랑하는 오키나와의 치무구쿠루를 후세에 전해야합니다.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를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야합니다.

오키나와현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9 년 6 월 23 일

오키나와현 지사 다마키 데니